



“오늘 꼭 투표하세요”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중구 정계광장 ‘아름다운선거’ 조형물 앞에서 예비승무원들이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재학생들이 승무원 복장을 한 채 대선 후보 구호를 제창하며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 누가 이겨도 여소야대... 득표율이 명운 가른다

## 개혁 추진·내각 인사청문회 부터 쉽지 않을 듯

### 후보들 성적따라 협치·소연정·정계개편 등 영향

대선 투표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포스트 대선’ 정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어느 후보가 승리하고, 어느 당이 집권 하더라도 의회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개혁 과제 추진은 물론 인사청문회를 통한 내각 구성부터 쉽지 않을 때문이다.

협치를 기반으로 국정을 끌고 갈 수밖에 없지만, 이번 대선 역시 이념과 세대 간의 대결 구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데다 극도의 네가티브 전쟁으로 감정적 양극도 상당해 당선자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각 후보의 성적표에 따라 정당 내부의 갈등은 물론 이합집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계개편의 회오리가 불수다 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여야의 대결 국면속에 ‘시계제로’의 안갯속 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일단,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경우,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얻거나 2위와 격차가 크게 나는 득표를 거두며 ‘압도적 정권 교체’를 이룬다면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면서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승리하더라도 ‘압도적 지지’를 받는 수준이 아니라면 국정운영이 쉽지 않겠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총리 인선이나 내각 구성 등이 순탄치 않을 수 있으며 하반기 추경이나 내년 예산안 편성 등에서 야권의 저항에 직면한다면 집권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으로서 문 후보가 당선된다면 국민의당·정의당과의 관계 설정이 주요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문 후보는 두 야당과의 소연정 가능성, 나아가 국민의당과의 통합 가능성까지 언급한 바 있어 이런 움직임이 정계개편으로까지 이어질지 관심거리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당선 여부뿐 아니라 얼마나 득표하느냐에 따라 범보수 진영의 재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홍 후보가 ‘막판 대역전’에 성공한다면 한국당은 집권 여당의 지위를 6개월 만에 되찾을 전망이다.

낙선하더라도 ‘당당한 2위’의 득표율을 올릴 경우 홍 후보의 한국당 지분이 커지면서 그의 표현대로 “‘박근혜당’이 아닌 ‘홍준표당’”이 될 수 있다. 홍 후보가 3위에 머무르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아들 경우 한국당은 대선 패배의 책임론을 두고 당내 분란이 커지면서 친박과 비박의 갈등 구도가 표면화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당도 안철수 후보의 성적표에 따라 당의 명운이 좌우될 전망이다. 안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현재의 정국은 제

3당인 국민의당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의미 있는 2위’를 차지한다면 여전히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를 쥐고서 만만찮은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다.

반면 안 후보가 3위를 하거나 1위와 크게 벌어진 2위를 한다면 국민의당은 창당 이후 최대 위기에 휩쓸릴 수 있다. 안 후보와 지도부 책임론은 물론 일각에서는 민주당과의 통합에 대한 목소리도 새어 나올 수 있다. 특히, 호남에서의 안 후보 득표율은 국민의당 생존의 변수로 꼽힌다.

바른정당의 경우, 유승민 후보가 만일 예상 이상의 성과를 거둬야 생존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성적이 기대 이하라면 당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최근의 상승세를 기반으로 진보정당 최초로 두 자릿수 득표에 성공해야 재도약의 발판을 확실하게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과 유보·부동층 판별분석을 통해 판세를 예측한 결과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조박빙 양자대결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성식 전략본부장은 통화에서 “문 후보 측이 30% 후반대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안 후보가 40% 이상 득표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준표 “40% 대 38%로 이긴다”=홍 후보 측은 안 후보를 제치고 문 후보를 거의 따라잡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홍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1992년 대선 사흘 전 YS(김영삼) 24.6%, DJ(김대중) 24.1%였다가 막판 사흘 만에 보수 대결집으로 YS가 42% 대 33.8%로 대승했다”며 “이번에도 보수 대결집으로 40% 대 38%로 이긴다”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文 “45%로 승리” vs 安·洪 “40%로 역전”

## 공식 선거운동 마감... 캠프마다 유리한 판세 분석 내놔

주요 대선후보들은 투표 하루 전인 8일 승리를 장담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세 분석을 내놓았다.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로 이끌어 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견고한 ‘대세론’이 승리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서로 문 후보와 양강구도를 구축했다면서 ‘대역전’을 예상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사표(死票) 심리’ 방지에 주력하면서 ‘선

거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문재인...“45%선 승리”=문 후보 측은 “김치국” 경제령을 내리면서 ‘대세론’이 뒤집히는 않으리라고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판세가 뒤집힐 만한 변수가 없었던 데다 문 후보 지지층의 이탈도 거의 없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문 후보 측은 과반 득표율로 승리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라고 기대하는 모습이다.

다만, 문 후보가 유세에서 계속 이야기

하는 과반의 득표율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결정타가 없어서 문 후보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상승할 요인도 부족했던 것 같다”며 “45% 언저리가 현실적인 수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안철수...“40% 이상으로 승리”=안 후보 측은 홍 후보를 멀찍이 따돌리고 문 후보와의 격차가 초박빙까지 좁혀졌으며 이날 유세를 통해 문 후보를 제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안 후보와 문 후보 간 초접전 양상”이라며 “세대별 투표율

과 유보·부동층 판별분석을 통해 판세를 예측한 결과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조박빙 양자대결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성식 전략본부장은 통화에서 “문 후보 측이 30% 후반대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안 후보가 40% 이상 득표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준표 “40% 대 38%로 이긴다”=홍 후보 측은 안 후보를 제치고 문 후보를 거의 따라잡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홍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1992년 대선 사흘 전 YS(김영삼) 24.6%, DJ(김대중) 24.1%였다가 막판 사흘 만에 보수 대결집으로 YS가 42% 대 33.8%로 대승했다”며 “이번에도 보수 대결집으로 40% 대 38%로 이긴다”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한국당 마지막까지 공방

## 洪 “장인 영감탱이” 발언 놓고 “패륜집단” vs “망언”

대선을 하루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측은 상대 당의 ‘패륜’ 실언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의 문용식 전 가짜뉴스대책단장이 페이스북에 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부산·경남(PK) 민심에 대해 ‘패륜집단의 결집’이라고 표현한 것과 홍 후보가 자신의 장인을 ‘영감탱이’라고 표현한 것을 각각 문제 삼았다.

문 후보 선대위 윤관석 공보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홍 후보는 장인을 ‘영감탱이’라고 지칭하며 26년간 용돈 한번 주지 않고 집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했다는데 장인을 푸대접하는 사람이 어리신을 잘 모실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박광은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홍 후보가 영감탱이 표현에 대해 오는 ‘경상도에서는 친근하게 표시하는 속어’라고 황당한 변명을 했다”며 “영남 지역민을 모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26년간 부녀 관계를 끊어 놓은 홍 후보는 나라 걱정보다 자신과 가족을

먼저 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 측은 문 후보 선대위 문 전 단장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비난했다. 정우택 상임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선대위 회의에서 “문 후보 측이 조조한 나머지 국민을 적폐세력으로 규정하는 망언도 쏟아냈다”며 “문 전 단장이 사회관계서비스망(SNS)에 올린 PK 지역 민심은 역설적이게도 ‘홍풍’(洪風)의 위력을 실감 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국당 공명선거추진단은 이날 “문 후보의 당선에 대해 특정 지역 또는 지역민을 공연히 비하·모욕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11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문 전 단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 전 단장은 지난 7일 밤 늦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본의 아니게 우리 당과 후보에 대한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文 ‘예비 내각’ 발표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이 관심을 모았던 ‘새도 캐비닛’(예비 내각)을 대선 전에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애초 문 후보는 ‘비(非) 영남 총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히면서 선거 전에 이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주목 받았다. 하지만 선대위 내에서는 미리 공개하는 것이 선거에 유리할 것 없다는 주장이 나오며 기류가 변했다.

결국, 문 후보는 대선 전날인 8일까지 당선에 대비한 차기 총리나 내각 명단을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문 후보는 지난달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총리로 준비된 후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염두에 둔 분이 계시다”고 밝혀 시선을 모았다.

이를 두고 문 후보가 대선 직전 차기

총리를 비롯한 내각 인선을 발표할 수 있다는 예측과 함께 각종 하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선대위 내에서는 대선일 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급속하게 쏠렸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내각을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당과 충분한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선거 득표전 전략을 고려해도 예비 내각을 발표할 경우 자칫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행동한다’는 비난이 나올 수 있는 데다 차기 내각 지명자의 결함이 드러나면 문 후보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선거법 위반 790건 수사중

경찰청은 19대 대선 전날인 8일 현재까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79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이들 사건과 관련해 851명을 수사했고, 이 가운데 죄질이 나쁜 7명은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사 이비상 선거법 위반사건도 64건(88명)으로 전체의 8%가량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현수막이나 벽보, 유세자

량 등 선전시설 훼손이 597명(5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흑색선전 82명, 선거폭력 36명, 불법 인쇄물 배부 24명, 금품 제공 13명, 사전선거운동 11명 등 순이었다.

특히 이번 선거기간에는 선전시설 훼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582건 중 벽보 훼손이 502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훼손은 68건, 유세차량을 비롯한 여타 선전시설 훼손은 12건이었다.

/연합뉴스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 공장, 토지, 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 광주시 광산구 남산동 733-1, 733-6
  - 토지 : 총 1,370㎡
  - 용도 : 주거지 1층 건물 철거조건
  - 6억5천만원
-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대리 587-27외 3필지
  - 토지 : 총 5,524㎡
  - 용도 : 주거지 2층
  - 8억3천만원
-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579-49외 3필지
  - 토지 : 총 866㎡
  - 용도 : 나대지
  - 2억5천만원 (교환가능)

**경매, NPL채권 배우면서 투자 가능하신 분 3명 모집**  
(2017년 3월 6일 ~ 2017년 3월 30일 까지)

##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자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대부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